

# 미래위 “광역시·도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 극복해야”

###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광주전남·부울경·대구경북·대전충남 대상 인구감소 시·군 통합...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시·군 대도시 편입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광역시·도 간 행정 통합이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안으로 제시됐다.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현행 지방행정체제가 인구와 경쟁력이 성장하던 30년 전 마련된 것으로 지금의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초광역권 행정 미흡, 비수도권 자치단체 위기, 지방행정 체제와 실제 행정수요 간 불일치 등을 30년 된 행정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미래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8가지 개편 방안을 제안했으며, 가장 먼저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대상 지역으로는 그동안 시·도간 통합이 작·간 접적으로 추진됐던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등이 거론됐다. 인천과 경기도는 이미 인구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속해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합 고려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 때부터 행정통합을 논의해 왔으며, 민선 8기 들어 지난해 7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전북지사가 첫 만남을 갖고 넓은 지역의 경제 분야 행정통합 형태인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맺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동안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 중심의 메가시티 조성을 강조해온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시 전체 발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발전전략을 넘어 생

존전략으로, 수도권 1극체제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면서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전북이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래위는 또 광역시·도 통합 이후에는 초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 '광역·기초'로 된 2계층의 자치체계를 유지하고, 권한 이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주문했다.

광역시·도와 함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시·군·구 간 통합도 주요 개편방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위는 인구감소 시·군 통합과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 향후 시·군·구 통합을 위해 검토할 만한 주요 유형으로 제시했다.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겼다.

미래위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위는 다만 시·군 간 행정구역 변경에 앞서 생활권·통행량, 구역변경 수요, 지역 간 유사성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권고안에는 특례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자체가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지자체 기능 조정 방안, 특별지 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미래위는 광역·기초로 이어지는 2단계 자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자치구의 일반구 전환, 인구 과소 시·군의 행정시·군 전환 등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또 하부행정기구인 읍·면·동 체계를 장기적으로 농촌의 경우 '읍', 도시는 '동'으로 단순화하고, 행정 창구 기능을 넘어 주민참여를 높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체제는 정책이 집행되는 그릇"이라면서 "정부의 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가장 먼저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추진할 지원단을 설치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거쳐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인구가 크게 줄어들더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돼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205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비수도권 '도(道)' 인구의 46.9%에 이를 것으로 미래위는 내다봤다.

또 농촌과 소규모 도시는 소멸위험이 커지는 반면 2040년 기준 인구 20만~100만명 규모인 중·대도시 인구는 오히려 5%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의 온도담 100도 펄펄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담 나눔온도가 100도를 가리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 전통시장서 설 장보면 최대 30% 환급 23~27일 양동시장 등 9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에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 구매 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농수축산물은 2만원, 수산물물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농수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농수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땐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장업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 각 200만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등록 자동차 10대 중 1대 친환경차

광주와 전남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는 광주 73만751대, 전남 127만7926대로 집계됐다. 이 중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는 광주 6만8198대(9%), 전남 12만8425대(10%)였다. 친환경차는 2023년 말 기준 5만3748대(광주), 9만5010대(전남)와 비교해 1년만에 각각 1만4450대, 3만3415대 늘었다.

전기차는 광주 1만5240대로, 2023년 1만2538대에 비해 21.6% 증가했다. 전남 역시 3만1417대로, 2023년 2만4200대와 비교해 29.8%나 늘었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 25.8%를 크게 상회했다. 광주 수소차는 1277대(전년 1245대), 하이브리드차 5만1681대(3만9965대), 전남 수소차 1197대(1026대), 하이브리드차 9만5811대(6만9784대)로 2023년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 국방과학기술 세계 8위...미국 82% 수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주요 12개 국방 선진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과 무기체계 개발 동향 등을 조사해 수록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 수준 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며, 이번에는 전문가 400여 명이 참여해 10대 무기체계 분야의 26개 유형별로 설문조사와 집단토론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종합 순위 공동 8위로 2021년 조사 때의 9위보다 한 단계 올랐다.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로는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08년 첫 조사 이래 꾸준히 1위를 유지

했고 이어 프랑스(89%이하 미국 대비 수준), 러시아(89%), 독일(88%), 영국(87%), 중국(86%), 이스라엘(84%), 한국(일본(82%), 이탈리아(79%), 인도(73%), 스페인(70%) 순이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이 포함된 화포 체계 분야에서 4위를 차지해 강세를 보였다. K2 전차 등 기동전투 체계 분야와 지휘통제 및 통신, 탄약, 방공 무기 분야는 7위로 조사됐다.

상승 폭이 두드러진 분야는 국방 소프트웨어로,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 상승한 79% 수준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쟁에서 활약상이 커진 공중무인 분야는 83%로 8위를 차지했다.

조사서 요약본은 국기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0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편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삼검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매달발전, 수출유망기업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업)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친화 기업)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업체표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eadquarter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 뭯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뭯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매출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감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영암군 공고 제2025-115 호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주민 열람 공고**

지역산업 진흥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영 암 군 수

1. 제한지역
  - 위 치 : 영암군 영암읍 영호리 160-1번지 일원
  - 면 적 : 112.468㎡
2. 제한사유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부부터 3년간
3. 제한사유 :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의 무분별한 토지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방지
4.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각호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5. 제한 제외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에 따른 행위
  - 개발행위 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 중인 사업
6.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5. 1. 23 ~ 2025. 2. 6 (14일간)
  - 장 소 :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운로 21-1층)
7. 관제주소 : 경제생략(공람장소 비치)
8.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므로 앞으로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 (☎ 061-470-2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공고**  
(채권자 이익제출 및 구조원칙을 공고)  
주식회사 남산(이하 '남산'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팜투메이비(이하 '메이비'라 한다)는 2025년 01월 20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 회사는 합병하고 같은 '올'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올'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각 관계 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 또는 주권의 제출이 없으면 합병에 이의 없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갑” 주식회사 남산 200111-0546180  
광주광역시 동구 남포로621번길 1,3층  
(울산동, 남산빌딩)  
대표이사 김영식

“을” 주식회사 팜투메이비 200111-0362908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8  
대표이사 김영식

**先州日報** 지극내내

· 통 권 266-1820 · 통 권 266-1900 · 통 권 525-3761  
· 통 권 222-8171 · 통 권 571-7658 · 통 권 266-7601  
· 통 권 433-1503 · 통 권 433-1503

· 통 권 673-6838 · 통 권 222-9054 · 통 권 225-6001  
· 통 권 572-3054 · 통 권 222-9171

· 통 권 673-6838 · 통 권 683-1833 · 통 권 673-6838  
· 통 권 675-6005 · 통 권 671-7276

· 통 권 282-5788 · 통 권 372-2252 · 통 권 389-1625  
· 통 권 376-7153 · 통 권 376-6511 · 통 권 603-0311  
· 통 권 363-1625

· 통 권 692-1687 · 통 권 959-1920 · 통 권 973-2900  
· 통 권 955-0451 · 통 권 944-0444